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급락...15년4개월만에 최저

건설업 "수주 줄고 자금조달 여건 악화"

건설 수주가 감소하고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지면서 건설경기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지난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대비 25.6포인트(p) 급감해 63.0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지수가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15년4개월만이다.

지난 4월 CBSI는 수주 증가 및 추경 예산 발표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한 88.6을 기록하며 1년10개월 중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5월에는 지수가 25.6포인트나

빠졌다.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지난 2004년 1월(-25.4p) 이후 15년4개월만이다. 지수 63.0은 2013년 11월 60.9 이후 5년6개월만에 최저치다.

기업 규모별로 중견과 중소기업 지수가 모두 전월 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특히 대형기업 지수가 전월 대비 40포인트이상 급격히 위축됐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형기업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 결정적인데 지난 3~4월 GTX를 비롯한 일부 대형 공

사 수주가 발생해 경기가 일시적으로 양호했지만 5월에는 뚜렷한 대형 공사가 없었다"며 "전반적으로 건설 수주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자금조달 지수도 2년 7개월만에 가장 낮다. 기업들이 지난달보다 자금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달 전망치는 5월 대비 18.1포인트 상승한 81.1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수치상으로는 전체 상황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라며 "5월 지수가 매우 좋지 않은데 따른 통계적 반등일 수 있다.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스

기아차, 더 과감해진 'K7 프리미어' 렌더링이미지 공개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디자인 콘셉트



기아자동차가 3일 K7 페이스리프트 모델 'K7 프리미어'의 내외부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전보다 더욱 과감하고 고급스러워진 모습이다.

기아차는 "이번 K7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국내 최초의 신시양과 고급화된 기술을 다양하게 선보임으로써 K7을 국내 최고의 준대형 세단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이같은 의지를 담아 'K7 프리미어'로 명명하고 고급스럽고 당당한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2009년 첫 출시된 K7은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현재 모델에 이르기까지 ▲면발광 방식의 LED 라이트 ▲인텔리오 라디에이터 그릴 ▲Z자형상(Z-Line)의 LED 라이트 등 매

번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기아차의 디자인 경쟁력을 상징하는 모델로 자리잡아 왔다.

K7 프리미어의 외관은 '담대하고 과감한 조형으로 완성된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콘셉트로 기존 모델의 특징을 극적으로 강조하고 선과 면을 과감하게 조합했다.

전면부는 2세대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인 인텔리오 그릴의 크기를 더욱 키우고 그릴 내부에는 강인함과 안정감을 강조한 두꺼운 버티컬 바를 적용, 더욱 담대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했다.

더불어 K7만의 상징적인 제트라 인(Z-Line) LED 주간주행등(DRL)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테두리에서부터 헤드램프 하단으로 이어지는 새로

운 형태로 변경돼 기존 모델의 디자인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섬세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담아냈다.

후면부는 차체를 가로질러 좌우의 리어램프와 연결되는 긴 바 형태의 라이팅 디자인이 적용돼 더욱 넓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완성했고 특히 전면부와 통일감을 이루는 제트라 인 LED 램프는 좌우를 가로지르는 바 안에서 간격을 두고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독창적인 라이팅으로 연결돼 역동적 느낌을 세련되게 표현했다.

K7 프리미어의 실내는 기존 모델의 장점을 계승, 깔끔한 수평형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의 각종 편의 장치가 미적·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공간'을 지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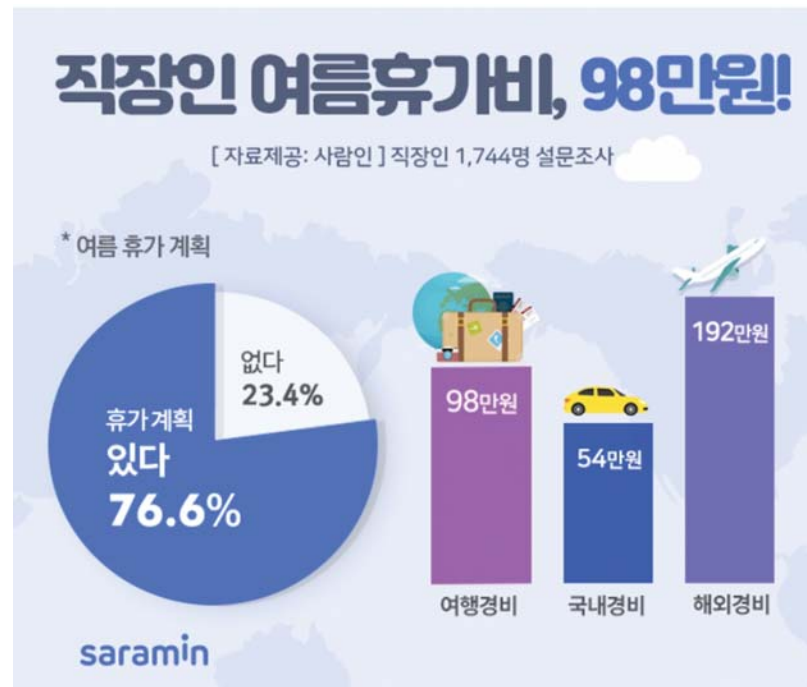
운전석 도어부터 클러스터(계기판), 센터페시아를 거쳐 조수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라인의 정렬감을 개선해 안정적인 느낌과 와이드한 개방감을 강조했다. 주요 부위에는 원목의 질감을 그대로 구현한 우드 그레인 소재와 크롬 메탈 소재를 적절히 조합해 대형 세단 수준의 고급감을 구현했다.

또 대화면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 모니터와 송풍구를 넓고 날렵하게 디자인하고 각종 버튼류의 배치를 최적화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뉴스스

직장인 올 여름휴가 비용 '98만원'

국내 68% vs 해외 32%...7월말~8월초 가장 많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올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휴가비용으로 평균 98만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744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6%가 휴가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되는 여름휴가 비용은 평균 98만원이었다.

휴가비용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휴가지를 국내로 선택한

직장인들의 평균 비용은 54만원인 반면, 해외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여행 비용은 192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휴가비용은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도 있었다.

기혼 응답자는 97만원의 휴가비용을 예상하고 있었고 미혼 응답자는 89만원을 예상해 10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직장인들은 올 여름 어디로 피서지로 국내를 택한 응답자가 68%로 해외(32%)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구체적인 국내 여행지로는 '바다'가 60.1%(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산(계곡)'(30.3%), '섬'(12.1%), '호캉스'(10.2%), '도심지'(6.9%), '문화유적지'(4.5%) 등을 꼽았다.

해외의 경우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41.4%, 복수응답),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37.9%) 등 가까운 아시아권이 많았다. 이외에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등 유럽'(13.8%), '호주, 뉴질랜드, 괌, 하와이 등 태평양'(7.2%), 미국, 캐나다 등 북미'(4.4%) 등이 있었다.

휴가를 떠나는 시기는 7월 말과 8월초가 맞물린 ▲7월 5주(20.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8월 1주(8/4~8/10)(16.2%) ▲8월 2주(8/11~8/17)(11.2%) ▲9월 1주 이후(10.8%) ▲6월 5주 이전(10.2%) ▲7월 4주(7/21~7/27)(9.9%) ▲8월 3주(8/18~8/24)(4.8%) 등의 순으로 답했다.

휴가기간은 평균 4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일'(35.5%), '5일'(17.9%), '2일'(16.7%), '4일'(15.9%), '7일'(5%), '8일'(2.5%) 등의 순이었다.

여행을 함께 떠나는 대상으로는 '가족'(55.4%, 복수응답)이 단연 많았고, '연인'(24%), '친구'(22.1%)와 함께 떠나는 답변이 이어졌다. '혼자 휴가를 떠난다'는 응답자도 10.8%나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 2만㎡까지 허용...이주비 용자 확대

가로(街路) 구역 면적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해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이 완화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거주민에 대한 기금 용자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용한다.

정부는 사업 추진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이 사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도로를 신설해 주민분담금이 높아지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용자가 가능해진

정부는 또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머물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해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며 "지난해부터 기금 용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었지만 제도적인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4월 노후주택 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위주의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30% 범위 시·도 조례로...거주민 기금 용자제도 개선 "주민들 원주거지서 머물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 지양"

골자로 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